

中央大學校 第2中央圖書館

鄭 英 彩

(中央大 第2中央圖書館長)

1. 머리말

중앙대학교 제2 캠퍼스는 京畿道 安城郡에 위치하고 있으며, 1980년 3월에 개설하였다. 50여 만 평의 교지를 확보하고 불과 8년만에 7개 단과대학에 8,000여 명의 재학생을 수용하는 거대한 캠퍼스를 건설한 것이다.

제2 캠퍼스의 도서관은 1980년 3월 캠퍼스의 개설과 함께 개관하였으나, 시급한 校舍의 건축에 밀려 제1 캠퍼스 중앙도서관의 分館으로 있으면서 교사의 신축과 확장에 따라 3회에 걸쳐 이전하는 등의 번잡과 불안 속에 내실을 다져오던 중 캠퍼스의 마스터 플랜에 따라 오늘의 도서관을 신축하고 1988년 3월 第2中央圖書館으로 발족·개관하였다.

따라서 8년여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나 제2 중앙도서관으로 독립·운영한 경험은 4개월에 지나지 않는다. 한편 필자가 초대 관장에 취임한 것도 개관과 동시였으므로 도서관 운영의 先例를 쓸만한 계제가 아님을 알면서도 원고 청탁을 완강히 사양하지 않은 것은 본 도서관과 같은 사례도 드물 것이고, 특히 제2 중앙도서관의 초대 관장으로서 5,000여 건평에 3,000여 석의 열람석을 갖춘 대도서관의 새로운 운영을 설계하는 意慾과 計劃 그리고 抱負를 내외에 밝힘으로써 도서관 발전의 계기를 삼고자 하는 생각이

앞섰음을 밝혀 두고자 한다.

이상과 같은 상황이므로 성공 사례의 보고라기보다는 過慾에 따른 失敗事例가 될지도 모르는 計劃과 抱負가 중심이 되는 본교 제2 중앙도서관의 소개가 될 것임을 전제하여 둔다. 아울러 필자는 자연과학을 전공하는 교수로서 도서관학적 전문 지식이 없고 도서관장의 경험도 일천함을 양지하시고 지도 편달하여 주실 것을 도서관계 여러분에게 부탁하고자 한다.

2. 大學圖書館 運營의 基本方向

주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대학 도서관은 대학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관이다. 따라서 대학의 본질과 사명에 충실하고 대학교육 상황의 변화에 따라 그 운영 방향도 상응하는 개선이 있어야 하며 적극적으로는 대학교육의 미래를 예측하여 대처하고, 대학교육의 개선을 선도하는 입장에 서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일반적으로 대학의 3대 사명을 敎育·研究·奉仕라고 하는 데는 이론이 없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목적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相互不可分의 관계에 있음도 재론의 여지가 없다. 즉, 대학의 교육은 연구 결과에 바탕을 둘 뿐만 아니라 새로운 연구를 위한 것이며, 대학이 국

가나 사회에 봉사한다는 것도 이러한 교육과 연구를 통한 것이다. 따라서 대학은 사회 봉사를 위한 교육과 연구를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적 기관이므로 사회가 요청하는 것을 교육하고 연구할 책임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사회가 요구하는 그것이 무엇이나를 진단하는 것이 순서이다. 그러나 이에 관하여 전문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필자의 전공이나 줄고의 취지와는 밀접한 관계가 없으므로 현대 사회와 이 시대를 표현하는 몇 가지 용어로 대체하고자 한다. 즉, 高度知識社會·情報化社會·技術革新의 時代·不確實性的 時代·平生教育의 時代 등의 낱말들이 함축하고 시사하는 것이 바로 현대 사회의 요청인 것이다.

대학이 교육하고 연구해야 할 내용이 되고 대상이 되는 知識, 즉 情報는 幾何級數的으로 증가하고 그 발전의 속도 또한 倍加現象을 보이고 있으나 대학의 교육 기간이나 교육 방법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교육 기간은 인간의 수명이나 정보의 속성상 그 연장이 무의미하므로 교육 방법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으며 하나의 상식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판단으로 1973년도에 이른바 實驗大學制度를 시도하였으나 실험 결과와 상관 없이 이수 학점만을 줄인 결과 대학의 교육량을 감소시켰다. 이 실험 대학이 표방하였던 많은 목표와 방법 중의 발달을 차지하였던 課題學習制度만이라도 성공하였다면 오늘의 대학과 대학 도서관의 位相이 달라졌을 것이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과제 학습은 학생들에게 과제를 주어 제출한 내용을 평가하는 것으로만 생각하여 평가상의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형식에만 그쳐 실패하였다. 교수 1인당의 학생 수, 조교 제도의 부실 등이 문제였지만 교수 자신들의 판단과 의지에도 문제가 있었다. 대학 도서관이 생각하는 과제 학습은 소위 指定圖書制度(reserved book system)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1973년 이후 이 지정 도서 제도를 과제 도서 제도로 개명하여 각 대학 도서관마다 課題圖書室을 설치·운영하였으나 거의 실패하였다. 그 실패의 공통 사

유는 교수들의 인식 부족에 의한 비협조였다는 것이다. 이 인식 부족이라는 표현은 약간의 설명이 필요하다. 즉, 특정 주제의 전문가인 교수의 입장에서 볼 때 대학 도서관 장서의 절이나 양은 물론 사서들의 능력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지식 수준이나 직접 입수하는 최신 정보와 비교하여 크게 미치지 못하고, 학생들의 과제를 해결하는 태도도 타인의 리포트를 복사하는 수준이어서 과제 학습이 시간 낭비 이외에 아무 것도 아니라는 인식을 말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인식이 잘못되었거나 비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앞서 이러한 인식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외면한 것이거나 경시하였다고 단언할 수 있다. 그것은 과제 학습이 특정 지식(정보)을 많이 배우거나 최신 정보를 신속히 얻는 그 자체에 주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고 그럴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평생교육 시대에 대처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임을 바로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경시한 것이다. 이제 대학교육은 完成教育일 수 없고 最高學府일 수가 없다. 따라서 불확실한 미래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 즉 기초 교양교육의 강화에 의한 평생교육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가장 큰 임무가 되었다. 다시 말하면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의 교육이 바로 도서관을 통한 과제 학습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 과제 학습은 도서관 이용법 또는 정보 활용법의 교육을 먼저 실시해야 학생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고, 적극 참여란 학생들 스스로가 현 시대와 미래 사회에 살아 남기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서의 정보, 특히 세 시대가 필요로 하는 가장 유용한 지식(정보)의 창출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자각을 통한 자발적 참여와 실습을 말한다.

이렇게 볼 때 대학 도서관은 바로 공부하는 방법을 실습하고 배우는 情報活用法教育의 現場이며 産室인 것이다. 정보화 사회를 정의하는 많은 학설이 있으나 상식적으로 말하면 資本이나 商品 그 자체보다도 그것을 창출하는 情報가 더 소중한 사회로서 이것이 없으면 생존 자체가 위협 받는 사회임을 말한다. 이렇게 말할 때의 정보란 주로 科學技術情報을 말하게 되나, 인간의 삶 그 자체를 보다 풍부하게 하고 유익하게 하

는 모든 정보, 특히 대학에서는 學術情報가 된다.

대학 도서관은 대학의 교육과 연구에 필요한 도서관 자료(학술 정보·지식)를 의도적으로 蒐集·整理·保存하여 교육과 연구에 活用하게 하는 間接教育機能에서 이제 그 자체를 가르치고 실습시키는 直接教育的 機能을 수행하지 않으면 그 간접 기능조차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시점에 와 있다. 그 까닭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은 지식 정보의 폭발적 증가로서 한 도서관이 모든 지식 정보를 전부 소장한다는 것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부분적인 정보의 습득보다는 전세계의 필요한 정보를 수집·정리·활용하는 방법의 교육이 중요한 것이다. 더구나 컴퓨터 기술의 놀라운 발전과 情報通信網의 汎世界的 形成은 한 도서관의 장서 규모나 시설의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조건하에서의 정보 수집과 그 활용법을 교육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전세계에 걸친 거의 모든 정보를 입수하는 방법을 실습할 수 있는 인공위성을 통한 소위 데이콤 네트워크(DACOM Network : Data Communication Network)의 성격과 구조, 정보의 평가법, 정보의 再創出法(課題解決·論方作成法) 등을 골자로 하는 정보 활용법의 교육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교육적 활동을 전통적인 도서관 업무에 우선함으로써 대학 도서관의 사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는 필자의 생각이 바로 본 대학 제2중앙도서관 운영의 기본 방향이다. 따라서 앞으로 소개하는 구체적 내용들은 이러한 전제하에서 그 의미가 있는 것임을 미리 밝혀 두고자 한다.

3. 第2中央圖書館의 施設 現況과 運營

1) 建物概要

총 건평은 5,151평으로 지하 1층, 지상 5층의 피라밋형의 건물로서 그 형태상 베란다가 2,000여 평이 되어 7,000평 규모의 대형 건축물이다. 캠퍼스 마스터 플랜에 의하면 중앙에 위치하여 어디에서 보나 安定感과 上昇感을 주며

〈표 1〉 층별 기능 및 성격

층 별	구 분	기능 및 성격	일 식 람 수
지 하 층 (1,079평)	자 유 학 습 실 고 시 반 열 람 실 서 간 이 식 당	24시간 이용 가능	440 56
1 층 (1,540평)	관 장 실 도 서 2 과 회 의 실 세 미 나 룸 교 수 연 구 실 박 물 관 일 반 열 람 실 서 고	각종 회의 가능 각종 세미나 개최 연구 과제 교수에게 일정 기간 대 실 연 수 자료	64 24 10 364
2 층 (843평)	참 고 실 (참고도서부·경기 간행물부) 문 학 · 예 술 도 서 실 보 건 소	주제별 열람실	452
3 층 (766평)	인 문 · 사 회 과 학 도 서 실 과 학 · 기 술 도 서 실 스 터 디 룸	주제별 열람실 주제별 열람실 그룹 연구	284 362 24
4 층 (501평)	비 디 오 라 이 브 러 리 사 운 드 라 이 브 러 리 시 청 각 교 실	시청각 센터	520
5 층 (422평)	개 인 별 열 람 실 스 터 디 룸	일인일실열람식 6인용 4실	271 24
기 타	관 외 열 람 식		212
총 계 5,151평			3,107 식

學問 蓄積을 상징하도록 설계한 것이다. 설계상 100만 책을 수용하는 書庫를 중심으로 각 층이 북 리프트(book lift)로 연결되고 두 개의 승강기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다.

각 층별의 기능과 성격은 위의 〈표 1〉과 같다.

2) 特徵的 施設과 運營

(1) 自由學習室

지하층에 위치하였으나 건물 정면에서는 1층이 된다. 24시간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기 때문에 지하층에 위치하게 하였고, 명칭 그대로 학생들 스스로 자기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다. 440 석 규모의 대형이고 양 편에 간이 식당과 서점을 마련하여 편의를 제공한다는 것이 오히려 학습 분위기에 마이너스 요인이 되어 2개로 칸막이를 하고 통로를 따로 내는 등의 개수 작업을 하였다.

(2) 個人別 閱覽室

1인 1실의 부츠(booth)형 열람석으로 5층에 271석을 마련하였다. 원래는 캐럴(carrell)의 개념으로 대역할 생각으로 설치하였으나 시류에 따라 포기하고 선착순 운영을 하고 있다. 아직은 큰 문제가 없으나 固定座席化 하려는 일부 학생과 24시간 개방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문제가 심각해지면 좌석 표에 의한 지정 좌석제로 운영할 예정이나 관리 인원상의 문제는 물론 학생들의 질서 유지를 감당할 만한 능력자도 찾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모색 중에 있다.

(3) 教授研究室

이 연구실은 10개가 마련되어 있으며, 일반 연구실과는 성격이 다르다. 즉, 연구 프로젝트를 가진 교수에게 일정 기간 프로젝트에 관련되는 도서관 자료를 비치하여 임시 연구 도서실로 운영하는 것이다. 이에 관하여는 자료의 운영에서도 언급할 것이다.

(4) 세미나실과 스터디 룸

2개의 세미나(회의)실은 총 88석으로서 지도 교수 입석하의 학술 활동에 한하여 이용하게 하며, 6석형의 스터디 룸 8개는 학생들의 그룹 스터디용으로 4인 이상의 공동 요청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5) 視聽覺센터

4층 500여 평에 비디오 라이브러리·사운드 라이브러리를 설치하고 각종 시청각 매체를 제작·운영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제 도서관 자료의 개념은 도서 형태 자료에서 차츰 마이크로 필름·녹음 테이프 등의 특수 자료로 전환되고 있다. 현재는 시청각 기기의 기술자에 의하여 운영됨으로써 매체의 제작이나 기계적 운영에 치중되고 있으나 매체 자료의 증가에 따라 도서관 자료화하여 전산화함으로써 도서관 봉사 및 연계적 봉사 체제를 갖추는 과제가 남아 있다.

(6) 데이콤네트워크(DACOM Network) 裝置
약 2억의 정보를 데이터 베이스(data base)화 하고 전세계에 걸친 정보 협력망을 갖추고 있는 미국의 情報銀行인 다이얼룩社(Dialog Information Service Inc.)와 인공위성을 통하여 직접 연결하여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컴퓨터 단말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아직은 시험 단계이고,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이용률이 저조한 형편이나 부담을 낮추고 실용성이 실증되면 활발히 운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4. 第2 中央圖書館의 要素別 運營과 問題點

일반적으로 도서관의 3대 요소를 施設·資料·人員이라고 한다. 이러한 요소도 대학의 3대 사명과 같이 상호 관련을 갖고 중국에는 이용자(library user)를 위한 것이다. 따라서 시설에 관하여는 이미 간략히 소개하였기 때문에 資料의 運營, 人事政策, 圖書館 利用教育의 순서로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1) 資料의 蒐集과 運營

(1) 收書政策

도서관 자료를 평가·선택하여 수집하는 藏書構成 계획을 수서 정책이라고 이름하였다. 그러나 1989학년도부터 제2 중앙도서관이 수서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직접하게 되었고, 현재까지는 제1 중앙도서관에 위임·집행하게 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원칙대로 집행되고 있다고 본다.

그것은 實需要의 原則으로서 전통적인 主題別 調和·形態別 按配를 벗어나 이용자 요구와의 조화와 안배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다. 教授 推薦制度·學生 希冀制度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구입하며 緊急圖書購入制度를 두어 예산·절차에 우선하여 당장 이용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였다. 당장의 실수요에 의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잠서 구성상의 부조화는 오늘날과 같은 정보의 상호 이용 협력 시대에 있어서나 정보의 속성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형태별 안배에 있어서도 자연히 海外學術誌(journal)에 기울게 된다. 현재 50:50으로 되어 있는 일반 도서와

의 구입비 균형은 곧 40 : 60, 30 : 70 으로 될 것이다. 그것은 정보의 최신성과 전문성을 중요시하는 실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다. 그리고 과제 학습을 위하여 지정(reserved)하는 자료는 모든 수서 정책에 우선함은 물론이고, 실수요의 원칙에 의하여 가장 많이 축적되는 주제 분야는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우선적으로 수집함으로써 도서관 상호 이용 시대의 일익을 담당하고 도서관의 특징을 삼을 생각이다. 그럼으로써 국가적인 조화를 이룰 것이다.

(2) 資料의 組織

수서 정책에 의하여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기에 가장 편리하게 정리하는 것을 分類·編目 또는 자료 조직이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는 도서관학과 鄭駉謨교수의 著錄形式을 따르고 있는데 그것은 電算化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自動檢索의 키 워드(key word)가 되는 主題名(subject heading)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전산화를 다소 미루고 있는 것은 타도서관과의 협력 체제를 고려하고 학생들의 교육상 가장 많은 도서관이 택하는 프로그램을 취하자는 의도이다. 이미 개발된 특정 전산화 프로그램을 이와 같은 각도에서 평가하고 있음을 밝혀 둔다.

(3) 資料의 運營

① 完全開架制의 實施

대학 도서관들이 개가제 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이용자의 자율적 이용 태도, 도서관 시설 등의 문제, 특히 자료의 분실을 염려하여 부분 개가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본 도서관은 처음부터 완전 개가제를 실시하고 있다. 물론 상당한 문제점, 즉 분실·배열의 흐트러짐 현상이 있었으나 교육적 차원에서 극복하고 있다. 신축 도서관 개관 이후 전자 감응 장치를 설치하고 제배열 전담원을 채용하는 등의 대응책을 마련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차츰 호전되고 있다. 앞으로 도서관 이용 교육을 통하여 자율적 이용의 태도를 육성해 나아갈 것이다.

② 主題別 奉仕에 의한 課題圖書室化

현재 정기 간행물을 포함하는 參考室(reference room)을 따로 두고 文學·藝術, 人文·社會, 科學·技術의 3개 主題別 閱覽室을 운영하고 있으나 자료의 증가와 主題專門司書(subject

specialist)의 충원에 따라 더 細分하여 봉사하는 체제로 개편할 예정이다.

대학 도서관은 연구를 지원하기 앞서 교육을 우선해야 하며 그것은 이미 課題學習을 통한 공부하는 방법의 교육이 필요함을 역설했었다. 과거의 과제 도서실이 실패하였던 경험을 살려 주제별에 의한 전문 봉사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서 主題 專門性을 살리기 위하여 東洋·洋書를 混合 配列하고, 배열 방법도 主題 聯關性을 살리기 위하여 D.D.C. 분류표의 체계를 수정하였다. 예를 들면, 응용과학에 속해 있는 경영학(650)을 인문·사회과학실의 경제(330)에 밀접하게 배열하였다.

그리고 이미 교수 1인당 100책 내외의 교육용 과제 도서를 추천 받아 구입중에 있으며 학과당 5종 이상의 저널을 추가하여 구입해서 앞으로는 주제별 열람실에 비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이는 살아 움직이는 도서관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며 매년의 계획으로 계속 추진할 것이다.

③ 參考室의 情報活用教育場化

이와 같이 주제별 봉사 체제가 정착되면 주제별 참고 도서도 주제 열람실에 비치되므로 참고실의 기능이 축소된다. 이제까지의 참고 봉사(reference service)가 도서관 이용 안내 기능이었으며 지금은 정보 봉사(information service)라고 할 만큼의 정보 안내 기능을 하고 있으나 주제별 봉사 기능이 제외되면 정보를 안내하는 것뿐 특정 정보를 그 자리에서 제공하는 기능은 거의 없게 된다. 따라서 종래의 안내 기능을 강화하여 교육 기능으로 하는 운영상의 개선을 꾀할 것이다. 즉, 앞으로 실시할 도서관 이용 교육의 실습장으로 운영하면서 타도서관과의 상호 협력, 특히 데이콤 네트워크의 업무에 중점을 둘 것이다.

④ 研究圖書室 計劃

이상과 같은 평생교육을 위한 자율 학습의 현상으로서의 기능을 확대할 때 대학의 연구 기능을 지원하는 도서관의 역할이 소홀할 우려가 있다. 그리하여 본 도서관의 명칭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각 대학 도서관, 특히 많은 연구 도서관(research libraries)을 생각하고 있다. 서구나

일본의 경우처럼 학과 도서관은 전문 연구 도서관이고, 단과대학은 과제(교육) 도서관이며, 중앙도서관은 두 도서관을 통할하는 방식은 우리와 같은 실정에서는 효율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본 도서관의 계획은 중앙도서관이 단과대학 도서관과 본래의 중앙도서관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학과별 전문 연구 도서관은 학과의 성격이나 필요에 의하여 육성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다음과 같은 구상을 하고 있다.

그것은 교수 1인용 연구 도서관 제도로써 교수의 특정 연구 계획(research project)을 그때 그때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 기간 동안만 그 연구 계획에 관련되는 자료만으로 설치하는 '리서치 프로젝트 라이브러리'이다. 현재 10개의 개인 연구실을 확보하고 있으며 그 배경은 다음과 같다. 즉, 학과 도서관이라 할지라도 교수들의 담당 분야가 세분되고 전문화되어 있으며 공동연구가 활성화되지 않아서 사실상 교수 1인이 연구의 주체가 되는 현실과 전문성을 살리기 위한 것이다. 부수적으로 경제적인 면을 고려한 것이다.

2) 人事制度의 改善 運營

도서관의 3대 요소 가운데 도서관 직원, 즉 인사 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70~75%라고 한다. 따라서 인사 제도의 성공적 운영만으로도 도서관 운영의 목표를 80% 가까이 성취하였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의 도서관 업무가 급속도로 자동화·기계화되어도 결국은 사람에게 의하여 운영되는 것이며, 기계화될수록 사람의 역할이 중요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기계화와 자동화의 방법으로 양산되는 매스 미디어에 의한 정보 전달의 특징은 非個人的(impersonal)인 것이다. 즉, 정보의 생산자는 특정 개인을 목표로 하여 생산 양식을 달리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데 정보를 필요로 하는 대상은 결국에는 개인이다. 그러나 개인은 갈을 수가 없다. 도서관 직원은 이러한 비개인적인 매스 미디어(정보)를 이용자 개인의 요구에 맞게 個人化하는 媒介者(personal mediator)다. 다시 말하면, 정보의 랜덤(random)

상태를 개인적 커뮤니케이션(personal communication) 형식으로 정돈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먼저 이용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그 개인적 요구 사항을 파악하고, 그 요구에 맞는 정보를 찾아 이용자 개인이 정보와 직접 커뮤니케이션하도록 하는 이중의 커뮤니케이터(communicator)이므로 정보 전문적 지식과 함께 매개자로서의 인간성이 함께 요구되는 것이다. 즉, 도서관 사서는 도서관 자료와 시설을 통하여 궁극의 목표인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매개자인데 단순한 매개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여 주는 교육적 커뮤니케이터(educational communicator)인 것이다. 이것은 기계가 하는 것이 아니다.

이상과 같은 도서관 운영의 주체인 직원의 인사 문제를 떠나서 도서관 운영의 개선이나 성공을 생각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모든 도서관 운영 방침이나 뒤에 언급한 도서관 이용 교육의 계획은 다음과 같은 인사 제도의 개선이 전제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다.

(1) 現行 人事制度의 問題點

현재의 모든 대학에 있어서의 사서적 인사 제도는 일반 행정과 동일하다. 즉 준사서·사서·사서부참사(주임)·사서참사(과장)의 직급 정원제에서 선임자의 승진이나 퇴직에 의하지 않고서는 승급·승진의 길이 막혀 있다. 이와 같은 일반 행정적 제도하에서 고도의 전문성과 인간성을 유지하면서 본래의 사명을 성실히 수행하는 경우보다는 대부분이 도서관 업무를 행정 사무로 생각하는 官僚化의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2) 改善의 方向과 方法

① 職制의 準敎職化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도서관은 정보 활용법의 교육 기관이며 연구 지원 기관이다. 그리고 사서들이 취급하는 학술 정보는 나날이 전문화되고 세분되며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어제의 지식을 가지고 봉사할 수 없으며, 특히 대학 도서관의 봉사 대상자는 최고의 지식 수준을 갖춘 교수가 포함된다. 따라서 특정 주제의 배경을 가

진 사서라 할지라도 계속 공부하지 않으면 전문성을 유지할 수 없다. 그런 면에서는 교수적보다도 폭 넓은 계속 연구와 교육이 필요하나 교수적과 같은 제도적 뒷받침이 없어 관료직화 되었음은 이미 지적하였다. 따라서 현행의 교수적과 같은 인사 제도로 개선하여야 한다. 이미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우수한 대학들이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② 主題專門司書의 確保

주제 전문 사서(subject specialist)는 특정 주제의 전문가이면서 도서관의 사서 자격을 갖춘 도서관 직원을 말한다. 그 전문 수준이 석사학위 이상인 것이 교수 대우를 받는 명분이 되고 정보화 시대의 사명을 완수하는 자격이 되나 적어도 학사 이상의 주제 배경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그러나 현재의 사서 양성 제도의 핵심인 도서관학과 출신의 주제 배경이 문제가 된다. 따라서 현재의 사서들에게 타전공 대학원 진학을 권유하고 장려하며, 신규 채용시에는 기존 사서들의 주제 배경을 고려하여 주제별 안배를 이루려는 것이다. 현재 인문·사회과학 부분의 주제 배경을 가진 사서는 많으나 자연과학 분야에는 단 한 명도 없다. 의과대학 출신에게 사서 자격을 취득하게 하여 의학 주제 전문 사서로 채용할 수 있을 만한 오직 하나의 방법은 앞에 말한 사서직의 교수직화밖에 달리 도리가 없다.

③ 再教育 機會의 擴大

아무리 주제 전문 사서라 할지라도 繼續教育(continuing education)의 노력이 없으면 도서관의 특성상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따라서 現職教育(inservice education)의 기회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물론 사서는 그 업무 자체를 통하여 계속 공부하고 있는 것이며 또 새로운 지식을 스스로 축적하고 있는 것이나, 이와 함께 의도적인 재교육 기회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현재 본교의 대학원 진학을 제한하고 있어서 박사 학위 과정에 입학한 사서가 사임하는 때 아픈 경험을 취임초에 겪었다. 장려해야 하고 장학금까지 주어야 할 입장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다. 앞으로는 제도적 개선을 통하여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교내·외의 사

서 연수 행사에 적극 참여하게 하고 자체 연수 계획을 세워 재교육 기회를 확대하며 해외 견학 등의 기회를 마련하여 자질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특히 앞으로 실시할 예정인 도서관 이용 교육에 관한 연수 기회를 마련할 것이다.

④ 現職教育 次元의 循環勤務制

대학 도서관과 같이 분업화되어 있는 대규모 도서관에 있어서는 순환 근무제가 철저히 실시되지 않으면 도서관 전반에 관한 실제 경험의 부족으로 기계의 部品과 같은 기능적인 사서를 만들 우려가 있다. 현재까지도 이러한 점을 의식하여 실시하여 왔다고 생각되나, 특정 업무의 효율상 과장급에 이르도록 모든 업무의 실제 경험이 없는 사례가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는 당장의 효율성에 급급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순환 근무 제도를 현직교육의 차원에서 실시할 것이다.

⑤ 專門職과 非專門職의 按配

쉽게 말하여 사서 : 비사서의 비율을 2 : 1로 하는 것이 좋다는 견해가 상식으로 되어 있으나 필자는 1 : 2 내지 1 : 3의 비율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말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본 도서관의 경우에 있어서는 앞에서 말한 도서관 운영 계획이 실천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사서들이 비전문적인 업무에 종사하느라고 전문 업무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파악하였다. 필자가 취임하였을 때 본 도서관의 비전문직은 단 1명이었는데(사환 제외) 이제 4명을 보조원(library clerk)으로 채용하였음에도 이와 같은 형편이 일소된 것은 아니다. 현재 2 : 1의 전통적 균형은 이루어졌으나 앞으로의 운영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전문 사서의 충원과 함께 보조 사서의 비율을 높일 것이다. 그리하여 전문 사서가 전문 업무를 전담하게 할 것이다. 전문 사서가 도서의 제배 열이나 분실 방지 등의 업무에 시간을 낭비하는 일은 없게 할 것이다.

5. 圖書館 利用法의 敎養課程 敎育化 計劃

제 2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보화 사회에

대응하는 대학교육은 평생 동안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기초 교양교육의 강화여야 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 기초교육이 어학교육일 수도 있고 기타 교양 과목일 수도 있으나 공부하는 방법의 교육이 그 중심이 된다고 생각한다.

현재까지의 도서관 이용법 교육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실시하였기 때문에 도서관을 스스로 이용하는 데 있어서의 기초 상식도 전달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따라서 사서들은 이러한 기초 상식의 안내 기능을 수행하는 데 모든 시간을 빼앗겨 전문 봉사는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것도 교육이고 봉사이지만 도서관의 기본 용어도 모르는 대다수 학생의 똑같은 질문에 동일한 대답을 매일 반복해야 하는 사서의 입장에서는 보람도 없고 친절할 수도 없고 바쁘고 번거롭기만한 일상을 견딜 수 없다는 호소이다.

이와 같은 이상적·현실적인 당면 과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으로서 도서관 이용법의 교양교육 강화화를 도서관들이 강력히 희망하여 논설도 발표하고 10여년간 당국에 건의도 하였으나 실현되지 않았다. 이제 최근 개정된 도서관법 제33조 3항에 대학 도서관의 한 업무로서 '도서관 이용법의 체계적 지도'를 법령으로 명시하였으나, 누가 어떻게 한다는 구체적 시행령은 없을 뿐만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지도한다는 명시 사항도 없다. 또 그렇게 법령을 제정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닌 것이 교육의 특성이다.

본 도서관은 이미 이와 같은 도서관측의 건의를 받아들여 도서관 이용법을 교양 선택 과목으로 실시한 몇몇 대학의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교훈삼아 다음과 같이 실시할 것을 대학 당국에 건의하여 실시하기로 하였다.

(1) 講座의 名稱과 內容

전통적인 명칭은 도서관 이용 지도(instruction of the library use)이고 미국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하며 관계되는 저서도 많이 출판되었는데 '도서관과 도서관 자료의 이용(using library and library materials)' 또는 '도서관 이용 교육(library use education)'이다. 전자는 도서관의 이용법 그 자체에 중점이 있고 후자는 도

서관을 이용하는 교육에 중점이 있는데, 전자를 먼저 해야 후자의 생명이 있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을 합하여 도서관교육(library education)이라 하는데 여기에는 도서관학의 교육도 포함되므로 애매한 점이 있다. '도서관과 도서관 자료'라는 명칭은 이미 '라이브러리'라는 용어 자체가 문고나 문헌의 뜻이 있고 도서관 자체가 그 자료를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도서관 이용 교육'이라는 명칭이 무난하나 이러한 명칭 때문에 특정 도서관, 즉 자기 대학 도서관의 체제를 중심으로 한 이용 안내를 교육 내용으로 실시한 결과 평생교육에 필요한 도서관 자료, 즉 정보(자료)의 활용법에 관한 교육이 소홀하였다. 그리하여 필자는 情報活用法이라는 명칭을 복수안으로 건의하였으며 내용도 정보의 蒐集(선택·평가)·整理·活用(論文作成)과 讀書法이 중심이 되도록 할 생각이다.

(2) 教育의 主體

강좌를 담당하는 강사는 도서관학과 원로 교수가 가장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 담당 시간상의 문제 등이 있어 유자격 전문 사서를 강사로 하는 안도 제시하였다. 그것은 이중의 효과가 있다. 그것은 사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도서관을 교육의 장으로 삼을 수 있으며 사서와 이용자를 함께 호흡하게 하는 것이다. 여기에 사서적 준교수직화의 실제와 명분이 서는 것이다.

(3) 教育 對象과 學點

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선택 과목인 만큼 2학년도 무방하리라고 생각하여 복수안으로 제안하였으며, 학점도 1학점 2학기과 1학기 2학점의 복수안을 제안하였다. 물론 과도적으로 학년의 제한을 두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우선은 특정 대학을 특정인에게 맡겨 실험 기간을 가지고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전면 실시를 지향할 것이다.

6. 맺음말

머리말에서 말한 바와 같이 도서관장으로 취임한 지 4개월밖에 안 되는 한 자연과학도가 신설이나 다른없는 제 2캠퍼스의 중앙도서관을 맡

오면서의 포부와 각오를 피력하였다. 필자야말로 비전문가여서 도서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대학 도서관들이 당면한 심각한 문제의 나무들은 보지 못하여도 문제의 숲은 一覽하여 볼 수 있었다고 자위한다. 필자가 본 대학 도서관이라는 거대한 산은 하나의 울창한 숲이며 이 숲은 살아 움직여서 맑은 공기를 공급하고 홍수를 막아 주고 경관을 아름답게 하는 곳이다. 오늘날의 情報 洪水와 숨 막히는 科學技術情報의 경쟁은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는 것이며 우리 대학에 중대한 문제를 던져 주고 있다. 이 문제의 한 해결 방법으로 도서관을 통한 정보 활용법의 교육과 이를 바탕으로 한 대학교육 개선 방향의 시각으로 대학 도서관을 본 것이다.

특히 본 도서관은 지방에 위치하여 생활관과 도서관을 중심으로 교육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특수성이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분

인에게 주어진 초대 관장의 책무가 무엇인지를 정리해 본 것이다.

필자는 취임초에 이러한 우리의 임무를 함께 수행해 나갈 것을 도서관 직원들에게 간곡히 부탁하였다. 그리고 謙遜·正直·奉仕를 당부하였다. 또한 유태인들의 오랜 격언을 소개하였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평생 고기를 먹이려면, 그날 그날 고기를 잡아다 줄 것이 아니라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라.”

이 오랜 격언이 함축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유태인들의 학문 세계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말하였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이 줄고가 쓰여진 만큼 전문가이신 도서관계 여러분의 아낌 없는 이해와 편달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